

군산시 코로나 확산 차단 총력

전수조사 과정서 감염경로 불분명 확진자 찾아내 추가감염 예방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산발적 집단감염에 따라 군산시가 선제적 대응을 통해 추가 감염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시의 경우 지난달 23일부터 확진자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확진자와 관련된 아파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직장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24일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전수검사를 실시해 학교와 관련된 군산 61번을 찾아냈다.

시는 군산 61번 확진자와 관련해 또 다른 직장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직장 관련자 5명의 확진자를 찾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기업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직장 전수조사를 실시 역시 기업체와 상관없이 감염된 군산 82번 확진자를 찾아냈으며 이와 관련해 추가로 12명의 확

진자를 더 발견 할 수 있었다.

시의 전수조사가 없었다면 더 많은 확진자들의 이동동선을 추가 감염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을 사전 차단한 것이다. 이 같은 군산시의 전수조사에 대해 행정력 낭비와 예산투입이라는 비난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핀셋방역과 전수조사 사이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는 핀셋 방역은 철저한 역학조사 과정을 근거로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으로 적은 예산과 인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감염경로를 알지 못하거나 돌발적인 변수에 대처가 늦을 수 있어 전수조사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지만 예산외의 감염자를 찾아내서 추가 감염을 사전에 막는 효과와 주변의 확진자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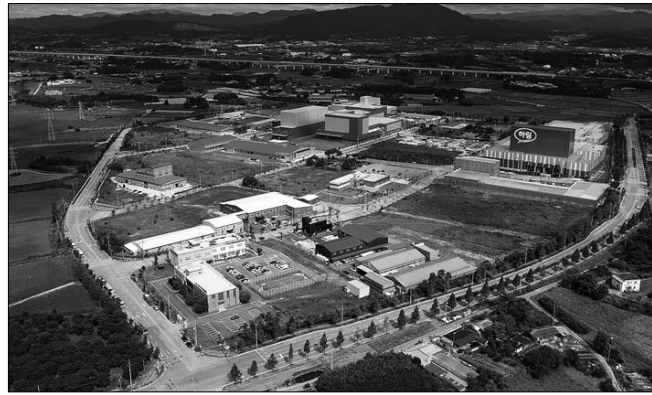
안감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군산시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갑작스러운 확진자의 폭발적 증가로 선제적 대응으로 전수조사에 중점을 두고 대응을 하고 있다.

실제로 군산지역 SNS에서도 "00아파트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자녀 학교를 보내기가 불안하다. 00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달라", "00직장은 전수조사를 실시해 놓고 이번 확진자가 나온 00회사에 대한 조사는 왜 안 하느냐?" 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 "00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것이 불안했는데 한 학년이나 같은 반만 조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 학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심하겠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가 전북도로부터 올 한 해 추진한 투자유치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익산시, 도내 투자유치 '최우수 기관' 선정

지난해 이어 2회 연속... 투자이행률 분야 등 실적 인정

익산시가 전북도로부터 올 한 해 추진한 투자유치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3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회 연속(2016.7.~2019.6./2019.7.~2020.6.) 전북도 주관으로 실시된 '투자유치 우수기관 선발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투자협약 실적, 투자 및 고용이행 신규 고용규모 등을 한해 전 반적인 투자유치 활동 사항에 대해 평가해 최종 결정됐다.

특히 시는 투자유치 활동 건수와 투자이행률 분야 실적을 인정받아 최우수 수상을 받게 되었다.

시는 제3·제4일반산업, 국가식품클

러스터 등 주요 산업에 올 한 해 동안 합사제약, 이너엔 등 10개 업체를 포함한 총 200여개 기업과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7천여개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분양률 88%, 88%를 돌파한 제8·4일반산업은 마더스제약, 에이치에스머티리얼즈, 라온에이치엔씨 등 착공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입주업체 가동이 본격화되면 인구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을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지원강화를 위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가고 있다"며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소중한 혈세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군산시의회, 추경 예산 심의

군산시의회(의장 정갑수)가 지난달 27일부터 꼼꼼한 2021년도 예산심의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부의안건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별로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예산심의를 통해 당초 집행부가 요구한 1조 4,128억원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301억88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시의회는 이번 제3차 본회의를 통해 군산시가 편성한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을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할 계획이며, 2020년도 최종 예산안은

오는 10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올해를 마무리 하는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은 제4회 추경 1조 5,676억 5300만원 보다 129억 6100만원(0.8%) 증가한 1조 5,800억 14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 대응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매칭을 위해 연내 여건상 집행이 어려운 각종 사업비 및 일반운영비 성격의 지출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서동수 의원의 건의문 채택과 김경구 의원의 설명서, 우종삼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서동수 의원이 제안한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 촉구 건의

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고용노동부장관, 전라북도지사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또 김경구 의원이 제안한 ‘군정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해결 촉구 설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철도공단, 전라북도지사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5분 발언에 나선 우종삼 의원은 현재 군산시청이 초촌동 시대를 시작할 때는 의회사무국을 포함해 5개국 22개 과였지만 현재는 6개국 35개과로 무려 13개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 공간이 협소해 조직개편 때마다 여가저기 칸막이 설치 공사 소음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대,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군산대학교 강기원 교수(기계융합시스템공학부·사진) 연구팀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주관하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선정되었다.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환경변화 및 정책 수요에 대응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내 기술력을 강화하고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산대학교 해상풍력연구원은 ‘40년

이상 수명을 갖는 풍력터빈 개발 타당성 연구’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경북대학교와 함께 선정 후 2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풍력터빈의 설계수명은 20~25년이었으나, 최근 수요 증가로 풍력터빈이 전 세계적으로 대형화 추세에 있고 설계, 소재, 시험 검사 기술의 발달로 성능 측면의 혁신성 및 경제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군산대학교 해상 풍력연구원 신뢰성 분야 센터장을 맡고 있는 강 교수는 “블레이드, 발전기 제어 베어링 등 풍력터빈 핵심부품에 대한 국내 기술력 향상의 기틀을 마련하고, 풍력터빈의 장수명화 주제를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시 ‘식량작물분야’ 우수기관 선정

익산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량작물 분야 정책들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4일 전북도농업기술원이 주관하는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식량작물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돼 시상금 110만원과 사업비 4천만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매년 농촌지도사업 5개 분야를 평가해 분야별 우수 시·군을 선발하고 있으며 올해 익산시가 식량작물 분야에서 탁월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농업기술센터는 밥쌀용 최고 브랜드 육성을 위해 한아름쌀 가공용쌀 원료 곡 생산단지를 성당면 일원에 105ha를 재배해 CI 고추장 원료로 5년간 전량 납품 계약을 체결하며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했다.

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향미 십

리향을 여산면 일원에 최초로 50ha 보급해 예담재 심리향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이외 벼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을 위한 벼 소식재배 사업을 지난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해 현재까지 재배 대상지가 약 800ha에 이르렀다. 해당 사업으로 육묘와 이앙비용 등 5억원의 생산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

황등면 일원에 기능성쌀 도담쌀을 생산해 산업체에 전량 납품한 결과 올해 도담쌀 30%를 넣은 수제쌀떡꾸를 출시했고 세계 3대 맥주대회로 꼽히는 호주국제맥주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상하는 성과도 달성했다.

이밖에도 시는 타작물 재배로 논공안정생산에 위해 파종과 두둑을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신기술을 보급하는 등 식량작물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쌓아 이번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익산=장왕원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아파트 청약 지역 거주제한 시행

군산시는 최근 급속하게 과열되고 있는 지역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2020년 12월부터 지역거주제한 제도를 시행해 투기 세력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최근 초촌동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급속하게 과열되고 있다. 이는 신규 공동주택 분양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투기세력 차단으로 분양시장 교란 및 이상과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시는 우선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 거주제한 제도를 실시한다. 또 부동산 불벌증개행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지역기관 협력

청년 고용 활성화 앞장

익산시가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기관들과 협력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

시는 지난 3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원광대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협약기관은 지역 청년 고용률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취업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청년 고용률을 증가시킬 예정이다.

특히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각종 교육 훈련 및 정보를 공유한다.

/익산=장왕원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